

농어촌교회, 60대 이상 교인 89%!!

지난해 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오는 2025년이면 고령인구 비율 20.6%로 초고령사회로 넘어갈 것이라 예측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군·구는 2020년 기준 총 109곳으로 전국 시·군·구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예정통합 영남지역 15개 노회에 대한 ‘농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자료가 발표됐는데, 농어촌교회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8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정부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농어촌교회의 고령화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고령화, 지방소멸, 디지털시대로의 급속한 변화 속에 농어촌교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판단하여, 비록 한 교단의 영남지역 농어촌교회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현 농어촌교회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 조사 결과와 작년 예정통합교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추적조사 결과 중 읍면지역 데이터를 추출하여 이번 141호에 정리해 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어촌교회의 선교와 정책 자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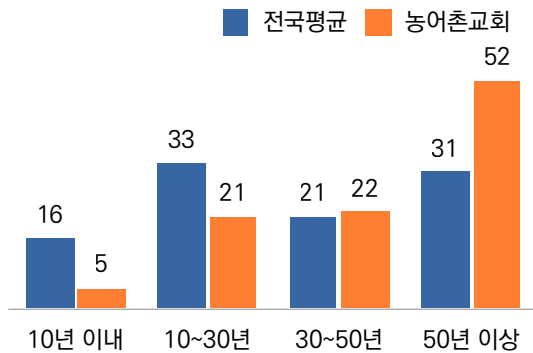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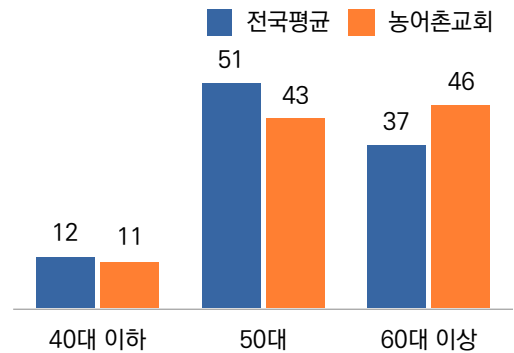
농어촌교회, 절반이 50년 이상 된 교회!

- ▶ 농어촌교회의 절반(52%)이 설립된 지 50년 이상 되었으며,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대도시와 비교하면 읍면지역일수록 오랜 역사를 지닌 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 ▶ 농어촌교회 목회자 연령은 절반 가까이(46%)가 60대 이상이었으며, 40대 연령층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전국평균이 60대 이상 37%인 점을 보면,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시무교회 설립 연수 (전국평균* vs 농어촌교회*, %)



[그림] 목회자 연령 (전국평균* vs 농어촌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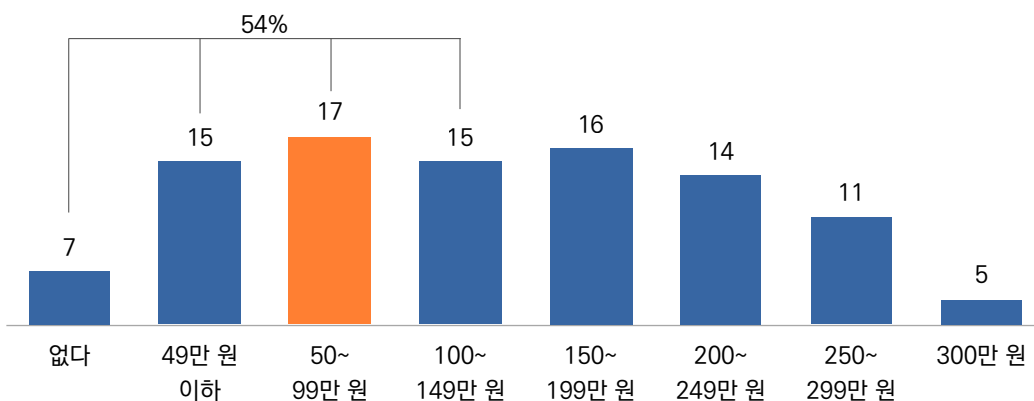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목회자 대상)', 2021.08.13. (총회소속 담임목사 891명, 2021.06.18.~06.30, 모바일 조사)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농어촌 목회자 절반 이상(54%), 월 사례비 150만 원 미만!

- ▶ 농어촌 목회자의 월 사례비는 절반 이상(54%)이 15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비가 아예 없거나 99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농어촌 목회자의 39%나 되어 농어촌 목회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형편을 보여 주고 있다.
- ▶ 반면 월 250만 원 이상 목회자는 16%에 불과해 5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월 사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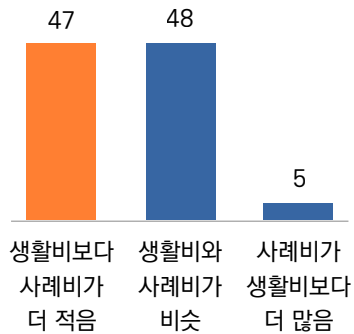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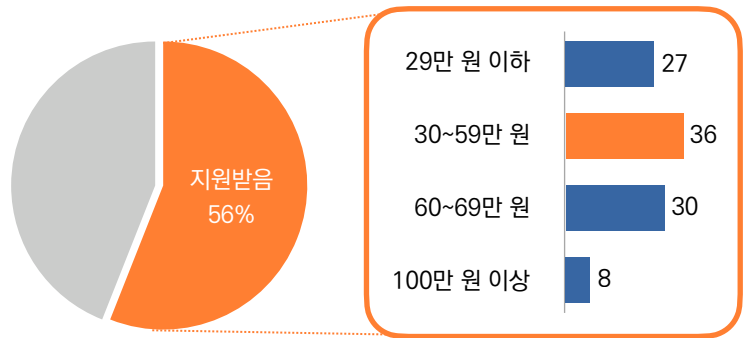
◎ 목회자 2명 중 1명꼴(47%) 생활비보다 적은 사례비 받고 있어!

- ▶ 목회자들의 생활비와 사례비를 교차 분석했을 때 ‘생활비보다 사례비가 적은 경우’는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생활비와 사례비가 비슷한 수준인 경우는 48%였다. 반면 사례비가 생활비보다 많다는 응답자는 5%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생활비에 비해 사례비가 더 적은 비율이 높았다.
- ▶ 외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56%였는데, 그 금액을 보면 30~59만 원 구간이 가장 많았고, 대체로 100만 원 미만(92%)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 생활비와 사례비 비교 (%)



[그림] 외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여부 및 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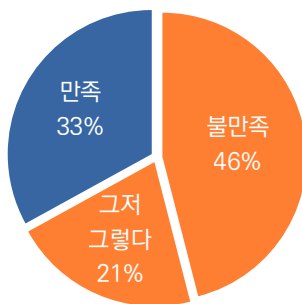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교회 재정만족도, '그저 그렇거나 불만족' 67%!

- ▶ 그렇다면 농어촌 목회의 재정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조사 결과 '불만족' 46%, '만족' 33%, '그저 그렇다' 21%으로 나타나, 불만족도가 만족도보다 약간 높았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교회 재정만족도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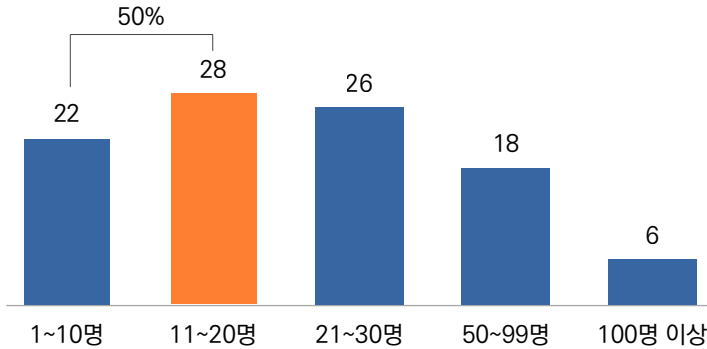
**만족(매우 만족+만족),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 비율임.

02

농어촌교회 절반은, 주일예배 평균 출석(성인 기준) 20명 이하

- ▶ 주일예배 평균 출석 인원수(성인 기준)를 보면 ‘20명 이하’인 교회가 절반(50%)이었고, ‘21~30명’ 26%, ‘50~99명’ 18%로 100명 미만이 대다수(94%)였다. 100명 이상이란 응답은 6%에 그쳤다.

[그림] 주일예배 출석교인 수 (성인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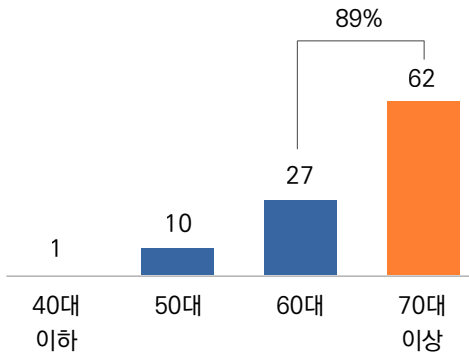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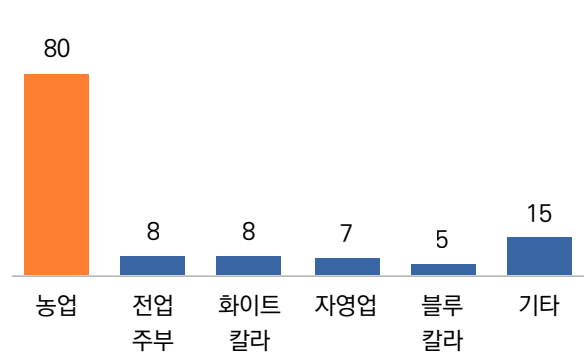
◎ 농어촌교회 60대 이상 교인 89%!

- ▶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연령층은 70대 이상이 6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대(27%)이다. 40대 이하는 1%였는데, 이는 젊은이들이 농어촌교회에 없음을 실감하는 데이터이다. 전체적으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농어촌교회 교인 10명 중 9명(89%)으로 농어촌교회의 고령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 농어촌교회 교인들의 주 직업군은 80%가 ‘농업’이라고 응답했는데, 농어촌교회 교인 5명 중 4명(80%)은 농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그림] 교인들의 연령분포 (%)



[그림] 교인들의 주 직업군 (중복응답,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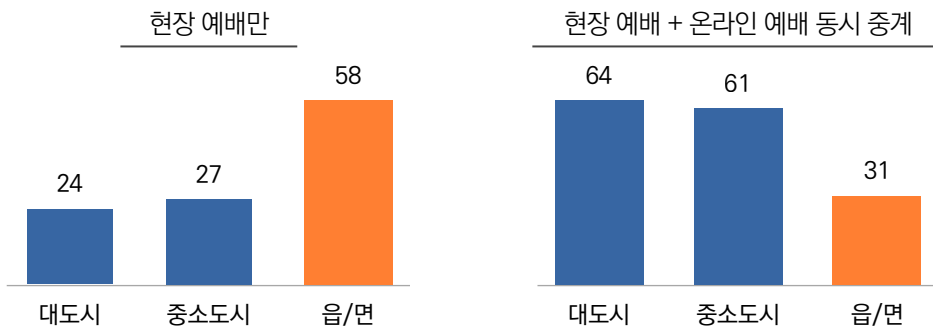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본 조사에서는 농어촌 목회자 221명에게 교인의 주 직업 2개까지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목회자 221명 기준으로 중복응답으로 다시 계산하여 정리하였음.

◎ 코로나19 기간, 농어촌교회 절반 이상(58%)은 ‘주일 현장 예배만’ 드려!

- ▶ 코로나 기간 중 주일예배 운영 형태에 대해 읍면지역의 경우 58%는 ‘현장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현장 예배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한다’는 응답은 31%였다.
- ▶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현장 예배만’ 드리는 비율이 각각 24%, 27%인 것과 비교하면 읍면지역의 현장 예배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 현장예배와 함께 온라인예배를 동시 중계하는 경우 읍면지역이 31%로 대도시(64%)와 중소도시(61%)의 절반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현 주일예배 운영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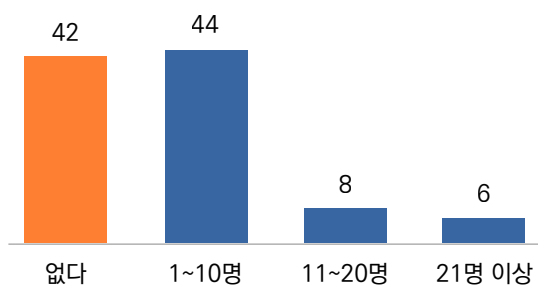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목회자 대상), 2021.08.1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 담임목사, 총 891명, 2021.06.18.~06.30, 모바일 조사)

03

농어촌교회 교회학교 현황, ‘주일예배 출석 학생 없다’ 42%에 달해!

- ▶ 농어촌교회 교회학교 출석 현황을 보면 아예 ‘없다’는 경우가 42%나 되었고, 그것도 ‘10명 이하’경우가 44%로 나타났다. 고령화, 농어촌인구 감소, 저출산 등의 요인으로 농어촌교회 교회학교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교회학교 주일예배 참석 학생 수 (유치부~중고등부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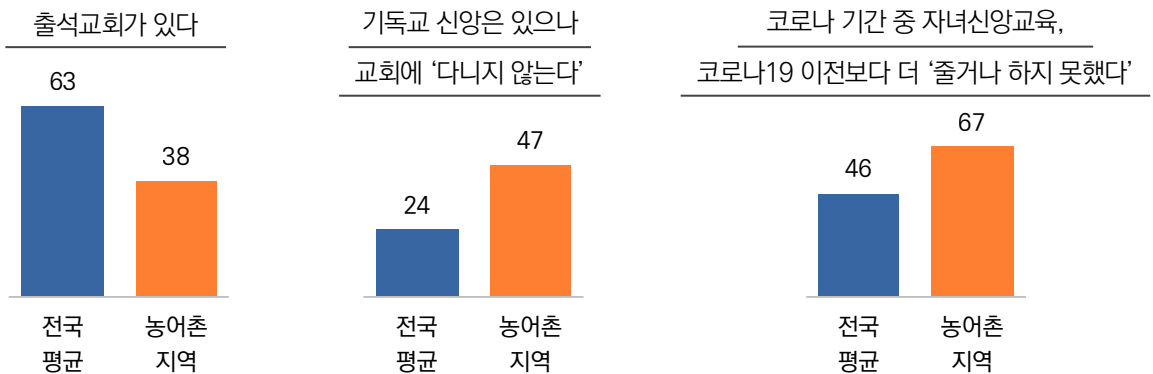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농어촌 지역 개신교인, 자녀가 ‘기독교 신앙 있지만 교회 안 나가’ 47%!

- ▶ 농어촌 지역 개신교인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석교회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8%로 전국 평균(63%)을 훨씬 밑돌았다.
- ▶ 또,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률은 47%로 전국 평균(24%)보다 두 배나 높아 농어촌지역의 기독교 가정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 코로나19 기간 중 자녀 신앙교육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는 67%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좋거나’, ‘하지 못했다’라고 답해 이 또한 전국 평균(46%)보다 21% 높게 답변됐다.
- ▶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이 있더라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하거나, 자녀 신앙교육에 힘쓰는 모습이 부족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농어촌지역 기독교 가정의 자녀 현황 (유치원생~고등학생 자녀 있는 개신교인 부모 대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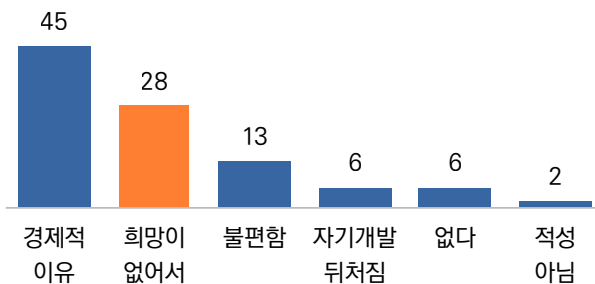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대상), 2021.07.2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총 1,000명, 2021.06.17.-06.28, 온라인조사)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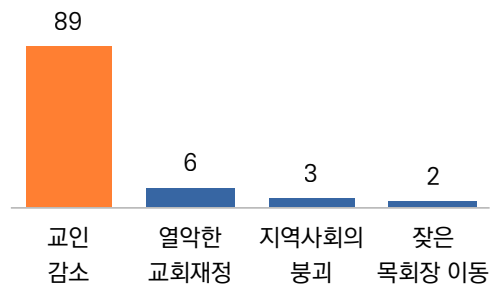
농어촌 목회 힘든 이유, ‘경제적 이유’ 45%, ‘희망이 없어서’ 28%!

- ▶ 농어촌 목회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는 앞선 사례비 조사 결과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경제적 이유’가 45%로 가장 컸고, ‘희망이 없어서’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 ▶ 10명 중 3명 정도의 농어촌교회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었다.
- ▶ 이와 더불어 ‘현재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인감소’ 89%, ‘열악한 교회재정 6%’, ‘지역사회의 붕괴 3%’ 순으로 교인감소가 압도적으로 높아,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케하고 있다.

[그림] 농어촌 목회가 힘든 이유 (중복응답, %)



[그림] 농어촌교회가 당면한 문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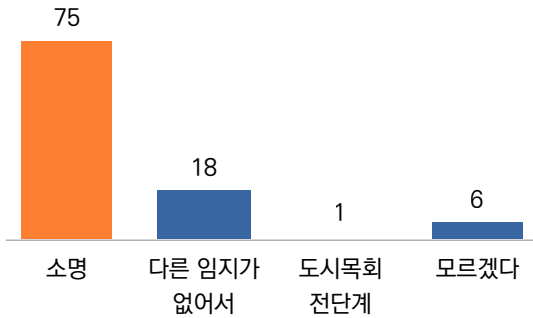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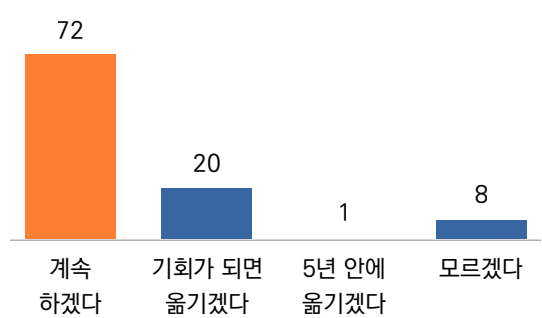
◎ 농촌 목회자 4명 중 3명, '소명' 때문에 '앞으로도 목회 계속하겠다'!

- ▶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명'이라고 답한 목회자가 75%를 차지하였고, '다른 임지가 없어서' 18%로 나타났다.
- ▶ 앞으로도 현재의 농어촌 목회를 계속 하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3명은 다른 임지로 옮기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림]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이유 (%)



[그림] 농어촌목회 지속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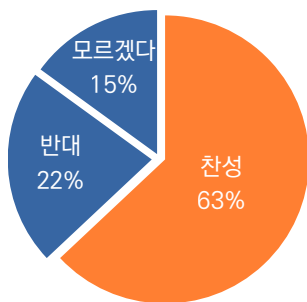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05

목회자의 이중직... 농어촌 목회자 63%가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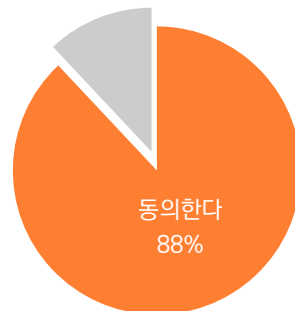
- ▶ 목회자가 목회 이외의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즉,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농어촌 목회자의 63%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22%로 나타나 찬성 비율이 반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와 관련 '한국교회가 이중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국 목회자의 8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농어촌 목회자의 이중직 찬반 의견*



[그림] 전국 목회자의 이중직 인식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전체)**

'한국교회는 이중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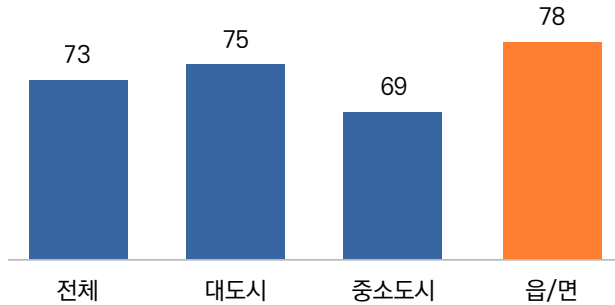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목회자 대상)', 2021.08.13.(총회소속 담임목사 891명, 2021.06.18.-06.30, 모바일 조사)

***4점 척도 질문임(적극+약간찬성 적극+약간반대, 매우+약간동의)

◎ 농어촌 지역 개신교인도 “한국교회가 이중직 목회자 지원해야” 78%

- ▶ ‘한국교회가 이중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개신교인의 78%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답해 전국 평균(73%) 대비 5%p 높게 나타났다.
- ▶ 농어촌 목회자들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성도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눈여겨 볼만하다.

[그림] ‘한국교회는 이중직 목회자를 지원해야 한다’
 (‘동의한다’ 비율, 전국 개신교인 전체, 거주 지역 크기별, %)



*자료 출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개신교인 대상), 2021.07.20.(전국의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총 1,000명, 2021.06.17.~06.28, 온라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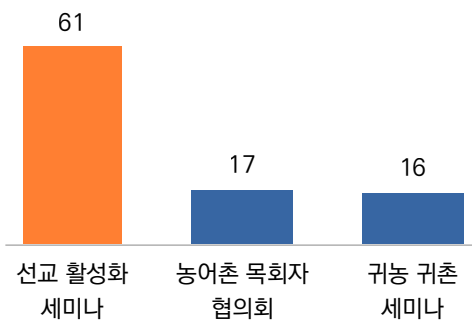
** 동의함(매우+약간) 비율임.

06

관심 있는 농어촌 선교 사업을 꼽자면, 5명 중 3명(61%)은 ‘선교 활성화 세미나’!

- ▶ 농어촌 목회자들에게 ‘관심있는 농어촌 선교 사업이나 활동’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목회자 5명 중 3명(61%)은 ‘선교 활성화 세미나’를 꼽았다. 다음으로 ‘농어촌 목회자협의회’ 17%와 ‘귀농 귀촌 세미나’ 16%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관심 있는 농어촌 선교 사업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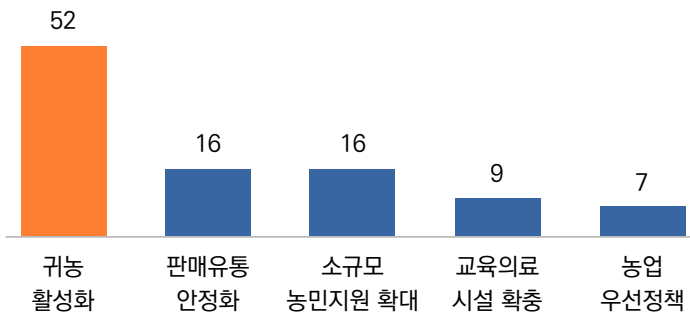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 농어촌 목회자, 정부에 바란다, 귀농 활성화(1위), 판매유통 안정화(2위) 순!

- ▶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이 정부 농업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귀농 활성화’ 52%, ‘판매유통 안정화’ 16%, ‘소규모 농민지원 확대’ 16%, ‘교육의료 시설 확충’ 9% 등의 순이었다.
- ▶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은 줄어들고 있는 농어촌 인구 문제와 농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귀농활성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정부에 바라는 점 (%)



*자료 출처: 예장통합총회 동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동부지역 농산어촌 목회자 및 교회 실태 조사', 2022.03.10. (예장통합총회 영남지역 15개 노회의 농산어촌 교회 848개 중 221개 교회 목회자, 모바일조사, 2021.04~2022.01)

농어촌교회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농어촌교회의 50%는 주일예배에 20명 이하가 출석할 정도로 소규모화 되어 있다. 또 교회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는데 출석교인의 89%가 60세 이상이고, 주일예배 참석 학생(유치부~고등부)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2%나 될 정도이다. 얼마 안되는 학생들도 성장하면 도시로 빠져 나갈텐데 그럴 경우 교회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2020년 우리나라 60세 국민의 기대 여명(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25.9년이므로 현재 60세가 86세가 되는 26년 후에는 교인이 한 명도 없어서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할 것이다.

농어촌교회의 위기의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집중화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어서 30년 후인 2050년에는 4,736만 명으로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¹⁾ 그리고 2050년 중위 연령이 58세로, 인구의 절반이 58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2020년에는 전국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50%를 차지했는데 2047년에는 52%, 2067년에는 53%로 늘어나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았다. 2047년에는 전 연령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52%로 예상되는데 청년층은 그보다 3%p 높은 55%, 2117년에는 전체 평균이 53%, 청년층이 56%로 예상되고 있을 정도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교회의 위기는 교회 재정 위기와 직결된다.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46%가 교회 재정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해서 교회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도 33%였는데, 이들은 교회 재정이 여유있어서 만족한다기 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인 경우, 교회의 특별한 사업이나 행사가 없어서 소요 예산도 필요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목회자 사례비도 매우 낮아서 월 150만원 이하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54%나 된다. 우리나

라 2022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인데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휴 8시간 포함-기준)이므로 농어촌 교회 목회자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례비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왜 이들은 험한 농어촌교회 목회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 '소명' 때문이다. 이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목회를 소명으로 여기고(75%) 농어촌 목회를 계속하겠다(72%)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농어촌 목회를 단순한 직업, 혹은 생활의 터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 들이고 있기 때문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 심정으로 농어촌 목회에 임하고 있다.

농어촌 목회자들은 부족한 사례비, 교회 운영비를 메꾸기 위해 도시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 교회가 절반이 조금 넘는 56%나 되었다. 지원 금액을 보면 30~59만원이 36%, 60~69만원이 30%로 30~69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 교회가 3교회 가운데 2교회나 되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후원은 목회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 인맥이 넓은 목회자와 그렇지 못한 목회자 사이에 후원금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우리는 '공교회'임을 믿는다. 농어촌 교회의 문제가 농어촌 지역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도시 교회는 농어촌 교회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농어촌교회 지원을 개교회에 맡겨 놓지 말고, 지방회, 노회, 총회가 나서서 지원받을 교회와 지원할 교회를 교회 규모와 형편에 따라 서로 매칭해 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더 많은 농어촌 교회가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해야 하고, 이미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교단에서는 이 제도를 더 강화해서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 전전공공, 동분서주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28호(2022. 1.18)